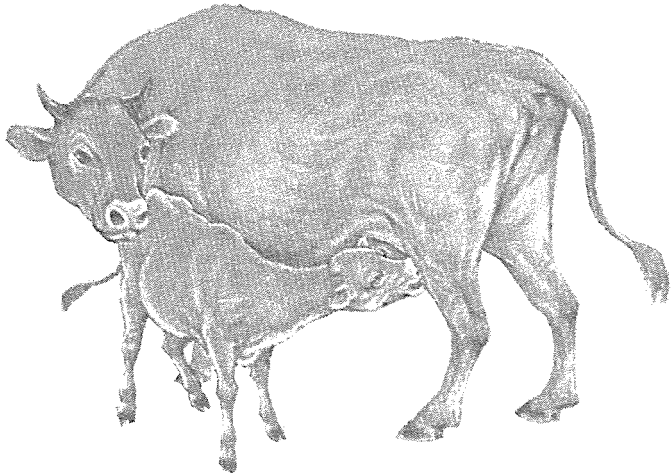


# 乙丑년에 바란다.



새해 새아침 乙丑년이 밝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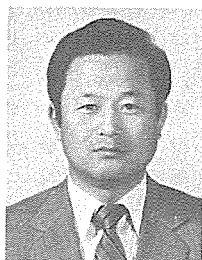
목은 해일랑 훌훌 털어버리고 希望찬 牛公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牛公은 온순하고 희생적이며 인간에게 순종할 줄 아는 양순함이 그에게는 있기에 금년은 온 누리가 평안하고 萬福이 충만함을 기원하는 마음이다.

여기에 사회 각계 각층의 새해 소망을 실어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한다.

# 질병퇴치를 위한 건강검사 사업에 더욱 주력할터.....

## 안 상 옥



다사다난했던 갑자년  
이 가고 송구영신의 회  
망찬 을축년 새해를맞  
이하여, 먼저 협회를  
도와주신 관계 유관기  
관의 여러분과 본회  
임직원 여러분에게 심  
심한 감사와 삼가 새  
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볼때 우리 협회는 기구  
와 시설의 증설, 제도와 조직의 정비및 강  
화, 검사장비의 새로운 도입과 구비 검사기  
술의 세련과 고도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기협은 그동안 기생충 관리사업을  
위시하여 비전염성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사업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이제  
는 건협 업무도 착실한 정착을 이루게 되  
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뜻깊은 기협 창립 20주년  
을 맞아 그 뜻을 기리는 기념행사와 기협  
20년사의 발간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던  
것은 그동안 기협이 걸어온 모진고초와 시  
련을 발판으로 오늘의 대기협이 있기까지  
의 협회 발전에 관여하고 기여해 주신 유  
관기관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협은 기생충 관리에 있어서  
는 가히 선진국으로 자부합니다.

지난해 9월, 네팔에서 열린 제11차 AP  
CO/F P 회의에서도 참석해 보았습니다만,  
후진국에 있어서의 기생충관리 사업은 아  
직도 난제의 하나임을 실감했으며 우리나  
라에 있어서도 기생충 감염율이 저하되었다  
고는 하나 아직도 상당한 감염율에 머물러  
있는 여타의 기생충 퇴치에도 더욱 힘써야  
하겠으며, 특히 건협에서 다루는 예방의학  
측면에서의 늘어나는 질병퇴치를 위한 건  
강검사 업무에도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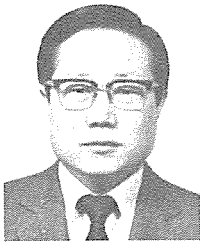
이러한 시점에서 볼때 우리 기협은 기생  
충 관리사업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업무인  
건강검사 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우  
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각오를 날로 새로이  
할때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공직자로서의  
굳건한 자세를 가다듬어 국민보건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높  
은 긍지심을 가지고 새해에도 지난해에 못  
지 않게 모든사업에 정성을 기울여 보다 알  
찬 새해가 되도록 전 기협, 건협 가족의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는 바이며 우  
리 기협과 건협 가족들의 소망이 모두 성  
취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필자=기협·건협 상무이사〉

## 1년을 구분해서 계획성있게

1월에는 출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상대의 장기예보는 따뜻하고 짧은 겨울이

유 원 상



라고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

출퇴근 길 전철안의 방송은 에너지 절약을 외쳐대지만 대자연의 위력에 비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여하튼 어떤 사람들 스키는 못 타더라도 좋으니 따뜻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2월은 학년말이라 학교로서는 마무리 시기가.

제1회 졸업생들이 나오고 이들이 의사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해야 신설 대학의 면목이 설 것이고 또 이들이 인턴으로 들어올 때 타 대학 출신과의 안배문제로 한 소동 있을 법 한데 제발 데모만은 안했으면.

살아가는 길이 꼭 그것만도 아닌데 꼭 백힌 짓들일랑 말고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책 읽는 행동들을 해 컸으면 좋겠다.

3월에는 우리 대학에도 대학원이 생긴다고 하니 좀 연구다운 연구를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다.

공동연구자도 얻고 시간도 얻고 연구비도 웬만큼 조달되면 금상첨화.

4월에는 봉급조정이 있을텐데 남못지 않게는 올려줬으면 좋겠다.

교수로서, 의사로서, 가장으로서 그리고 종가의 종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유지는 할 수 있어야겠다.

멋진 휴가 한번 못 가고 주말 골프 안치고 마이카 없이 지내는데도 더 절약하려면 그나마 보람을 느꼈던 조그마한 소득재분배라는 사치도 그만 둘 수 밖에.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몇년 쟤 미룬 여름 휴가를 아이들과 함께 떠나봐야. 지난 2년동안은 지방대학에서의 강사료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어 예산에 차질이 생겼

지만 이번에는 그럴 일이 없었으니 괜찮을 테고

7월에는 생일이 끼었으니 인생 50이라 민방위에서도 제대하게 되니 후련하지만 한물 간 것 같아 씁쓸하다.

남들은 알찬 수확을 견우어 격양가를 부를 판인데, 거두어 들일것이 별로 없을 듯 하니 이제부터라도 분발하여 볼 것이지.

대기 만성이란 선혈들의 말씀만 신주처럼 믿고,

가을에는 미국이나 일본에라도 가서 무엇 좀 배워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늬마에 고생 덜하고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배운 길을 걸어가자면 아무래도 심장병 재활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해 보았으면 한다.

그러면 우선 남들이 하는것을 보고 와야겠다.

구체화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5개년 계획을 세워 우선 시작이라도 해 볼까 한다.

또 하나 욕심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 고혈압에 관한 소책자를 펴냈으면 한다.

시간과 능력이 허용될런지 모르지만.

년말에 한 해를 마무리 할 때 계획 했던 일, 바라던 것들이 생각대로 안되고 모두 모두 허사가 되더라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것은 우리 핵가족의 건강이겠고 욕심을 부린다면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더 바랄것이 없겠다.

<필자=인제대학 부속백병원 내과과장>



## 200평 땅에 조그만 집을



내게는 새해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망이 딱 한 가지가 있다. 불후의 명작을 쓰고 싶거나 뭐 그런 거창한 소망이 아니라 실은 아주 조그만 소망이다.

서울에서 백리 이내쯤의 거리에 땅을 한 이백평쯤 갖고싶다. 뒤로는 산이있고 앞으로는 피레미가 뛰노는 조그만 계천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겠다. 거기다 흙벽돌로 방 두어칸짜리 집을 지어놓고 마당에는 밭을 일구어 상치, 파, 고추, 가지, 부추등을 심어먹고, 글을 쓰다가 땀이 나면 개울에 나가 떡을 감고, 머리가 아프면 뒷 산에 올라 하늘을 쳐다보고, 어찌다가 서울에서 친구들이나 잡지사, 신문사의 사람들이 찾아오면 마음 폭 놓고 하룻밤 내어 술을 마시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따위의 풍월은 실상 낡아빠진 소린지도 모르겠다.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시골에 가서 살고싶다”고 하는데 그건 꼭 처녀애들이 “시집 안 갈래요”하거나 늙은이들이 “빨리 죽고싶다”고 하는 것처럼 속마음과는 다른 얘기로 들리기 때문이다.

워낙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벌써 15년이나 살아온 서울이 갈수록 정나미가 떨어져서 정말이지 미칠 지경에 이르러 있다.

허구헌날 위장병이니 뭐니 해서 골골하다가도 일단 시골에만 내려가면 내몸 어디에서 힘이 숨어 있었던지 필필 날아다닌다.

밥맛이 좋고 금방 살이 오른다. 아무리

## 李 淸

술을 마셔도 이튿날 아침 뒷결의 새소리를 들으면 씻은듯이 술이 깬다.

서울에서는 소주 몇 잔만 마셔도 다음날 하루종일 머리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나는 지금 심한(서울 알레르기)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벌써 몇 해 전부터 나는 이 거창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주군, 가평군, 남양주군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땅을 물색해 보았는데 집을 지을만한 땅이면 이미 너무나 비싸서 백만원 남짓한 내 주머니 사정으로는 감히 엄두를 못낼 정도가 되어 있었다. 시골이라도 한 평에 몇 만원씩가니 내가 계산한 돈으로는 열 평을 사면 고작이다. 값이 싼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몇 천평이니 만평이니 하는 큰 덩치로 거래가 될뿐 이백평 자투리로 팔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올해 겨울 그동안 밀린 바쁜 일들을 대충 마무리 지은 후에는 아예 배낭 하나 메고 본격적인 탐색에 나설 작정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으니 설마 이 넓은 천지 어디때에 나같은 서민 하나가 상치나 좀 심어먹겠다는데 그럴만한 땅이 없겠는가.

요즘 나는 좀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예의 없이 땅 이야기부터 꺼낸다. 땅이라는 것을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마구 사들이는 바람에 결국 시골 땅값을 올려 놓아 나 같은 사람은 밭도 못 부칠 정도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쥐꼬리 만큼이나 남아 있는 시기다. 이제 앞으로 십년 쯤 후가 되면 가난한 서민들은 시골의 맑은 공기도 마실 권리가 없게 될 지도 모른다.

그렇게 처참한 꼴이 되기 전에 진짜 시골에 가서 살아야할 촌놈들은 서둘러 지금 떠나야 한다. 이것이 내 지론이다.

서울에 꼭 살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개는 첫째로 자녀들의 교육을 꼽는데 그건 다 엉터리 수작이다. 나는 지금도 시골에서 자라 시골에서 교육 받

은 것은 천만다행으로 여겨 농부인 내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있다.

새해, 1985년에는 나의 작은 소망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벌써부터 든다. 나 같은 사람이 많으면 시골의 땅값이 또 오를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말아주기 바란다. 땅값을 올리는 자들은 따로 있다. 실제로 서울근처 백리 안팎의 땅들은 이미 검은 손들이 모두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소설가〉

##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한 삶을.....

### 황 대 영



경부선 밤 열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새벽 안개에 휩싸인 철로변의 낮은 풍경들이 환상의 악보위에 음표처럼 떠 오른다.

머언산, 낮은언덕, 길게누운 강물이 사분음표, 팔분음표 혹은 십육분음표나 온음표가 되어 내 사색의 바다를 향하여 도도히 흐른다.

혹은 멈추고 혹은 맴돌고 혹은 아우성치며 흘러내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점점이 떠 있는 섬표같은 자연의 절망을 감지할 때 마다 나는 문득 하얀 화선지를 대하는듯한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한 점, 한 획이 불필요해서도 안되고 한번 그어진 선은 지워서 고칠 방법이 없다는 동양화.

그 한쪽의 그림처럼, 한번 지나간 삶의 발자국 역시 결코 되 물릴수 없다는 사실이 새삼 나의 뇌리에 두려움으로 떠 올랐기 때문이다.

가진자나 가지지 못 한자, 배운자이거나 배우지 못한자, 얼굴이 잘 생기고 못 생기고에 관계없이 범상하게 주어진 똑 같은 삶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밝게사는 참된 삶의 길인가를 생각하며 작가는 고뇌하게 된다.

그리하여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고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피게하듯 운명 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변모하게 하는 불멸의 정신으로 작가는, 창작의 세계속에서 승화하길 원한다.

그러나 그러한 의식을 가진 내 스스로가 자연의 한 점이 되어, 삶의 악보위에 섬표로 정지 되 버릴때 느껴야 했던 그 슬한 번뇌와 갈등들, 그렇게 벽에 부딪쳐 허물어져 내릴때마다 내 흉중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허둥대는 의식의 자락을 일상속에 감추고 돌아서며 나는 기원한다.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하소서.

새해에는 하늘을 나는 새떼들처럼 좀 더 신선하고 자유롭게 비상하게 하소서

〈필자=화가〉